

제 33 회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일 시 : 1992. 9. 23~25
- 장 소 : 경북 구미시 (금오체육관)
- 출연종목 : 평 양 검 무
- 출연인원 : 36명

평안남도중앙도민회  
평양검무보존회



# 평양검무

— 평양검무에 대하여 —



문화재 전문위원

이 보 형

우리나라에서 칼춤(劍舞)의 기원은 신라(新羅), 황창랑(黃倡朗)의 고사(故事)를 대는 경우가 많다. 신라의 소년 황창랑이 백제(百濟)에 들어가 칼춤으로 이름을 낸 뒤에 칼춤으로 백제왕을 죽이려다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뒤에 황창랑의 탈을 쓰고 칼을 들고 춤을 추며 황창랑의 고사(故事)를 연출한데서 부터 칼춤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高句麗) 벽화에도 칼을 들고 추는 춤의 그림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칼춤은 상고시대 전투무용(戰鬪舞踊)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칼을 들고 추는 춤에 공막무(公莫舞), 검기무(劍器舞), 항장무(項莊舞) 등이 있었으나 오늘날 검무(劍舞)는 검기무에 연원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 검무는 궁중(宮中)과 지방 관아(官衙)의 연례의식(宴禮儀式)에서 연행(演行)되었고 또 민간의 향연(饗宴)에서도 추어졌던 만큼 가장 보편적인 춤의 하나로 꼽히었다.

검무는 경향(京鄕)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오는 동안에 지역성 특성을 지니고 발달하여 각 지방마다 그 고장의 향토적 특색을 지닌 검무들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에 대부분의 지방에서 검무가 전승이 끊어졌다. 오늘날 전승이 끊어지지 않고 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도 진주검무(晉州劍舞)와 통영검무(統營劍舞)가 있다. 이 밖에도 호남검무(湖南劍舞)와 서울검무가 있으나 공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근래에 황해도 해주검무(海州劍舞)가 복원되어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입상한 바 있고 인천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다.

평양에도 검무가 성행하였었다. 조선시대 평안감사 부임도에 보면 평양 연광정에서 검무가 공연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평양의 가무(歌舞)가 유명한 만큼 평양검무 또한 이름난 것이지만 지금 평양검무는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행히 10대에 평양에서 검무를 배운 바 있는 이봉애(李鳳愛)여사가 평양검무를 잊지 않고 있어서 이를 복원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여사는 평안남도 평양시 서성리(西城里)에 살며 김학선(金鶴山)선생에게 검무와 승무(僧舞)를 배웠다 한다. 평양검무는 다른 지역 검무와 비교하면 개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맨 처음 방석돌이나 숙임사위도 좋지만 연풍대 까치걸음 번개사위가 다른 지역의 검무에서 볼 수 없는 활달한 춤사위를 보여 대륙적인 고구려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 평양검무 출연진



이 봉 애



윤 춘 자



김 윤 분



김 혜 경



김 화 심



반 숙 진



강 혜 자



정 은 진



김 정 열



손 영 순



김 정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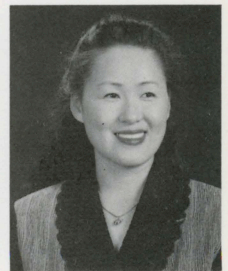
황 건 자



김 명 옥



김 은 희



김 동 은



# 평양검무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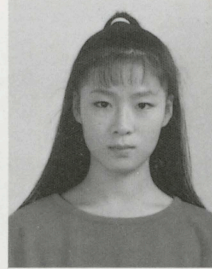
송경숙



안현주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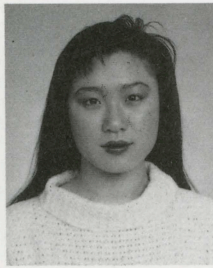
이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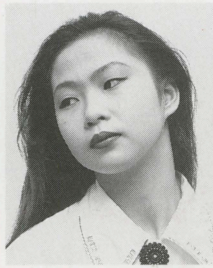
박경숙



김성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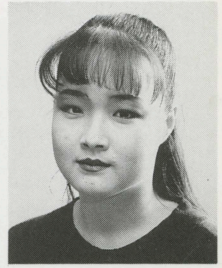
서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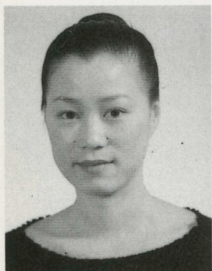
임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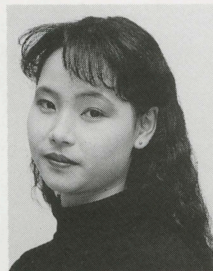
김재심



이금주



조미화



신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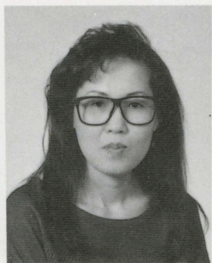
장정예



권종숙



김정욱



장정숙



신양순